

주요기사 해설

2007-08-22

● 중국, 올들어 4번째 금리인상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문으로 전 세계 증시가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나홀로 상승세를 보여온 중국증시가 21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4,955.21을 기록하는 등 중국증시 과열현상이 지속되자 중국 인민은행이 예,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는 3월, 5월, 7월에 이은 올해 들어 4번째 금리 인상이며 예금금리 인상폭을 대출금리 인상폭보다 높게 책정함으로써 투자억제보다는 실질 예금소득 보장을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과 증시과열을 진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금리인상은 종전과 달리 주식시장에서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증시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나 물가 상승을 감안한 실질금리가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라는 점에서 그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문으로 CD금리 상승세

최근 2개월간의 콜금리 인상을 반영하듯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예금유치 및 은행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은행들이 CD발행량을 늘리고 있는데 반해 머니마켓펀드(MMF), 채권형펀드 등의 주요 CD투자자들의 매수력이 한계를 보임에 따라 이 같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 한,일 양국 엔캐리 부작용 공동 대응기로 합의

최근 엔캐리 청산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 양국은 엔캐리 청산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적극 협력하여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는 양국의 부작용 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위축되어 있는 투자심리 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진다.

